

## 10/27(화) 사사기 묵상 8

### 사사기 2:18-23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좇게 되자 그들은 주변의 대적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평화가 깃들게 될 즈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주기였습니다(반역--보응--회개--회복).

#### 사사들

사사	성경 구절	지파	괴롭혔던 족속	괴롭힘을 당한 기간	안식의 기간	전체 기간
웃니엘	3:7~11	유다	메소보다미아	8년(3:8)	40년(3:11)	48년
에훗	3:12~30	베냐민	모압 족속	18년(3:14)	80년(3:30)	98년
삼갈	3:31		블레셋 족속			
드보라	4~5장	에브라임	가나안 족속	20년(4:3)	40년(5:31)	60년
기드온	6~8장	므낫세	미디안 족속	7년(6:1)	40년(8:28)	47년
돌라	10:1~2	잇사갈			23년(10:2)	23년
야일	10:3~5	길르앗-므낫세			22년(10:3)	22년
임다	10:6~12:7	길르앗-므낫세	암몬 족속		24년(10:8, 12:7)	24년
입산	12:8~10	유다 또는 스불론			7년(12:9)	7년
엘론	12:11~12	스불론			10년(12:11)	10년
압돈	12:13~15	에브라임			8년(12:14)	8년
삼손	13~16장	단	블레셋 족속	40년(13:1)	20년(15:20, 16:31)	60년

#### 12 사사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들을 세워주신 것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변의 적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민족 즉, 메소보다미아,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 그리고 내부의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삿 2:2-3,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즉,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가시와 울무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두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상,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자신의 임재를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들이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도 사사들이 없거나 그들이 죽은 후에는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들도 점차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삼년 간이나 스스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악하게 다스렸습니다. 또 사사기 후반기에 등장하는 소사사들은 아무런 공적도 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늘리고 개인사에만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정욕대로 행동하는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인간 사사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커녕 도리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사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삼상 8:5, “**그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것이 사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딤후 2:1-2, “**..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의 올바른 권세는 우리의 바른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이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 권세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악한 일에 사용하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근현대에 볼 수 있는 독재자들의 최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황제들 중에도 특히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은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습니다. 또한 성경 속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겼던 아합과 이세벨은 저주스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기도제목

1. 한 주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국민들을 위하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김봉춘<몽골>, 김흥기<T 국>, 나요엘<중국>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